

불어의 음절구조 분석*

-억양과 강세음절-

Analyse de la structure syllabique du français

이 정 원**

(Jungwon Lee)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some notes on the French syllabic structure based on the relation between the intonation pattern and the stressed syllable. The recent phonetico-phonological study is mainly focussed on the notion of syllable. However it is quite difficult to analyse the syllable structure because of its complexity.

In this paper I have tried to analyse the French syllabic structure both in phonetics and in phonology. This paper contains three parts. First of all, in section 2, the notion of syllable and the French prosodic phenomena are reviewed phonetically, and is phonologically focused on the intonation pattern. Secondly, in section 3, I have analyzed the relation between the intonation pattern and the stressed syllable in French based on CSL analyses. Finally, in section 4, I have suggested some syllabic structure patterns in French based on the analyses in section 3.

This is an attempt to further the inter-disciplinary study between phonetics and phonology, and also an attempt to settle on a model of phonological French syllabic structure. I have left the application of the result of this study as a future subject to study. But still,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serve as a basic reference for those who are studying French and for students who are would like to learn about French syllabic structure.

1. 머리말

과거에 분절음(les segments) 중심으로 연구되던 음운 이론은 최근에는 음절(la syllabe) 중심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아울러 음성학 분야에서만 다루던 초분절음 연구(les études supra-segmentales), 즉 운율 현상(les phénomènes prosodiques)에 관해 음운론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국내외에서 음성학과 음운론을 연계하여 활발하게 연구하고

* 이 논문은 1995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육성과제 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서양어대 불어과 교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음성학적 실험 분석을 겸한 음절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학제간을 넘어서는 관심이나 학문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불어의 음절 구조(*la structure syllabique du français*)에 대한 연구는 음성학이나 음운론의 개론서에서 언급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음운론적으로 불어의 음절 구조의 모형(*le patron syllabique*)을 규명하는 것 뿐만아니라 불어의 억양곡선이 발화체 내에 음절수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강세음절의 변화에 따라 억양곡선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불어의 음절 구조를 운율현상과 함께 음성학 및 음운론적 분야에서 동시에 분석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불어의 억양 속에 나타난 강세음절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첫째, 음절에 관하여 이미 발표된 국내외의 문헌 및 자료를 종합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둘째, 불어의 운율 현상을 개괄하며, 셋째, 불어의 발화체 자료를 음성 분석기인 CSL(*Computerized Speech Lab.*)을 통해 실험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억양과 강세음절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고, 끝으로 불어의 음절구조를 분석하여 그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음절의 개념

음절은 음성학적 기본 개념의 하나이다. 특히 불어와 같은 음절 중심 리듬 언어에서는 운율 단위의 기초가 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절의 개념은 80년대 초부터 음운론 분야에서 급속하게 발전되어 음운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음절의 분석을 기초로 발전된 몇몇 복선 음운이론(*la phonologie pluri-linéaire*)에서는 음절의 표면구조뿐만 아니라 그 심층구조까지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Pike(1947)는 음절을 하나의 흉박(*chest pulse*), 즉 하나의 소리의 울림마루(*peak of sonority*)를 형성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분절음으로 된 단위로 보았고, Abercrombie(1976)는 호흡기관의 근육수축이 공기를 구강(*oral cavity*) 밖으로 방출함으로써 음절을 이룬다고 정의한 바 있다. 이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음절이란 일반적으로 하나 혹은 둘 이상의 분절음으로 구성된 하나의 소리의 울림마루이며 음운 단위이다. (조성식 ed. 1990: 1222 참조) 이 장에서는 음성학 및 음운론에서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음절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1 음성학적 정의

음절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유는 음절을 정의하기 위한 관점이 학자들에 따라 음향적, 청각적, 조음적 또는 기능적으로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음을 중심으로 음절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스위스의 언어학자인 Saussure(1967: 77-95)는 각 음의 열림 정도에 따라 음절을 정의하였다. 그에 의하면 음절의 경계는 벌림이 작은 음에서 벌림이 큰 음으로 옮겨가는 곳에 있으며

음절의 첫머리에서 점차로 별림이 커지는 것을 외파(explosion)라고 하고 음절 끝에서 별림이 작아지는 것을 내파(implosion)라고 정의했다. 이때 음절핵 뒤에 있는 자음을 내파음이라고 하고 모음 앞에 있는 자음을 모두 외파음이라고 하며 음절은 < > (열림 + 닫힘)의 부호로 나타내어진다. 따라서 > < (닫힘 + 열림)으로 되는 곳에는 언제나 음절의 경계가 있게 된다. 아래 (1)의 발화체는 4개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개의 열린 음절과 두 개의 닫힌 음절을 포함하고 있다.

(1) Jean lève son verre. [ʒãlevsõver] < > < > < > < > (장이 그의 컵을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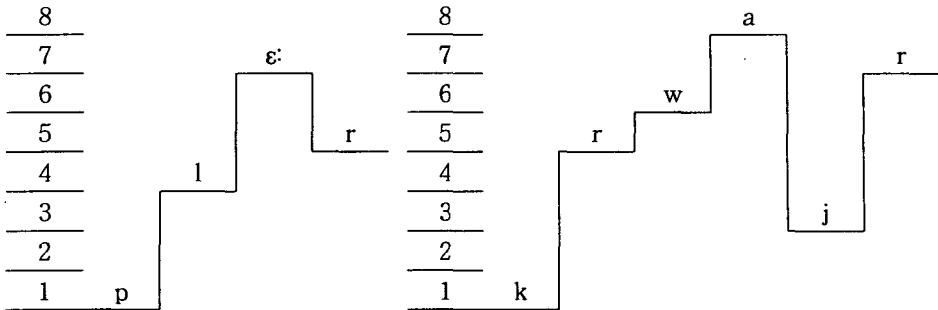
한편 덴마크의 음성학자 Otto Jespersen(Malmberg 1991: 76 재인용)은 소리들이 공명성(la sonorité)에 따라 서로 모여려는 경향이 있다는 관점에서 음절구조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음들은 그 공명의 정도에 따라 울림이 가장 큰 것을 중심으로 음절이 형성된다. Jespersen은 음을 공명도가 낮은 것부터 배열하여 (2)의 표에서와 같이 분류하였다.

Jespersen의 경우, 음절경계는 “들림이 가장 작은 두 곳 사이”에 있다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3)에서의 각 정점은 그 절대적 높이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음절을 나타낸다. 이 경우 ‘plaire’는 1 음절 낱말이며 ‘croyez’는 2 음절 낱말이 된다.

(2) Jespersen의 분류에 따른 음의 공명정도 표

울림 정도	소리분류	분절음
1	Consonnes sourdes(무성자음) a) Occlusives(폐쇄음) b) Fricatives(마찰음)	[p, t, k] [f, s, ʃ]
2	Occlusives sonores(유성 폐쇄음)	[b, d, g]
3	Fricatives sonores(유성 마찰음)	[v, z, ʒ]
4	Nasales et latérales(비자음 및 유음)	[n, m, ŋ, l]
5	Vibrantes(진동음)	[r]
6	Voyelles fermées(폐모음)	[i, y, u]
7	Voyelles mi-fermées(반폐모음)	[e, ø, ε, œ]
8	Voyelles ouvertes(개모음)	[a, a]

(3) *plaire* [plɛ:r] (~의 마음에 들다) *croyez* [krwajɛ] (믿다: 2인칭 복수형)



또한 프랑스의 음성학자 Maurice Grammont이나 Pierre Fouché와 같은 학자들은 생리학적인 견지에서 음절은 음성기관의 근육의 긴장증대에 이은 긴장감소의 특징을 갖는다고 정의하였다. 그밖에도 많은 음성학자들이 음성학적으로 음절을 정의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음절의 정의는 표면적 음절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답변은 될 수 있으나 음운현상을 설명한다던가 음성 표현된 발화체가 몇 개의 낱말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다음 예의 경우에는 이러한 음성학적 고찰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다. 예를 들어 *les enfants* [lezãfã] (아이들)의 경우 세 개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사 *les*와 명사 *enfants*을 분리시켜 고찰하면 [le]와 [ãfã]이 된다. 이 경우 [lezãfã] 안의 [z]가 *les* [le]의 기저형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기저형을 다루는 음운론에서 밝혀주어야 한다. 또한 [ʒãlevsɔvr]라고 음성 표현된 발화체가 *Jean lève son verre.*(장이 그의 컵을 든다)라는 의미인가, 또는 *J'enlève son verre.*(내가 그의 컵을 치운다)를 나타내는 것인가는 음절의 숫자나 음절경계만 갖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발화체의 경우에는 그 내용의 의미파악을 위해서 문맥(문어체)이나 운율(구어체)을 살펴봐야 한다”.

2.2. 음운론적 정의

음운론 분야에서 최근 10여년 동안 음절의 개념은 음운이론(les théories phonologiques)의 중심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음절을 기초로 한 음절음운론(la phonologie de syllabe)은 과거 각 개별언어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수많은 음운 현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초분절 음운론 또는 복선 음운론의 발전으로 음성학 분야로만 간주되었던 운율론(la prosodie)의 제 현상(강세, 리듬, 성조 및 억양 등)을 분석하는데 음절을 기초로 연구함으로써 음성학 및 음운론 분야에서 음절의 중요성이 재확인되고 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음절구조에 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음절을 단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특히 음운론에서는 추상적인 음절의 개념 즉, 기저형을 다루기 때문에 학파나 학자들의 숫자만큼의 음절개념에 대한 정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발전된 음운 이론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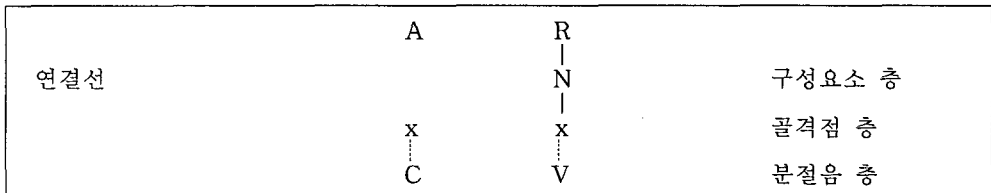
1 그러나, 음성학에서는 음절을 정의함에 있어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외하고는 소리의 공명도를 반영하는 관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논문 4장의 음절구조 분석에서도 공명도를 참고할 것이다.

는 과거 단선적 개념으로 보았던 음절의 구조를 계층적 구조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며 분절음을 음절의 구성요소 하위에 표현하는 것 또한 공통적인 견해이다.

이 절에서는 최근 발표된 음절이론 가운데 하나인 지배음운론(La théorie du charme et du gouvernement)²⁾을 중심으로 음절의 개념을 간략하게 개괄하기로 한다.

음절의 구조적 계층화를 주된 내용으로 Kaye, Lowenstamm, Vergnaud(1985, 향후 KLV로 칭한다) 등은 과거 UG(Universal Grammar)에서 설정한 음절의 계층적 구조형태를 더욱 발전시켜 전세계의 언어를 세 종류의 음절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내용에 따르면 불어는 두음(Attaque)과 운모(Rime)가 분기(branche)하며, 음절핵(Noyau)이 분기하지 않는 'CCVC' 형태를 지닌 언어중의 하나이다. KLV의 음절의 구성요소(les constituants syllabiques)인 두음, 운모, 음절핵에 대한 음절의 계층적 표현을 살펴보면 (4)와 같다.

(4) 음절의 계층적 구성요소 표현: 'CV' 단음절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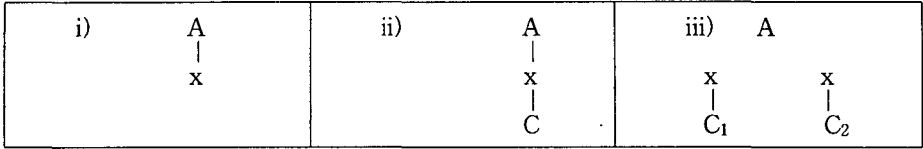
- a) 구성요소 층 : 두음(A), 운모(R), 음절핵(N)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두음에는 자음이 연결되고, 음절핵을 포함하고 있는 운모에는 모음이 연결된다. 운모가 분기하는 경우에는 음절핵에는 모음이 연결되며, 운모에 직접 자음이 연결될 수 있는 골격점으로 나누어진다.
- b) 골격점 층³⁾ : 구성요소 층과 분절음 층을 연결시켜 주는 중간 층위로서 시간의 연속성을 표현한다. 두음이나 음절핵이 분기하는 경우에 각각의 구성요소에 두 개의 골격점이 연결될 수가 있다.
- c) 분절음 층 : KLV의 지배이론에서는 별도의 분절음 표시이론 즉 엘레먼트(les éléments)라고 부르는 융합인자들의 결합으로 분절음의 내부구조를 나타낸다⁴⁾.
- d) 연결선 : 직접 연결을 나타내는 실선, 간접 연결을 나타내는 점선⁵⁾ 등이 있으며, 선이 없는 경우에는 연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서 음성표현이 표면화되지 않는다.

(4)와 같이 불어의 음절구조를 분석해 보면 아래 (5)와 같이 음절에 대한 각 구성요소의 세부 구조를 얻을 수 있다.

2 지배음운론은 Kaye, Lowenstamm, Vergnaud(1985)의 발표를 중심으로 이정원(1988, 1990, 1993)에서 그 내용을 발췌함.
 3 Durand(1990: 215-217)의 경우에는 골격점 층을 CV 층이라고 칭한다.
 4 분절음 표현방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정원(1988, 1991, 1993)을 참조하기 바람.
 5 이 연구에서는 KLV의 분절음 표시이론을 다루지 못하므로 분절음을 종전의 음소(phonème)로 표기한다. 그러나 음소는 골격점에 직접 연결된 상태가 아니므로 점선으로 연결하여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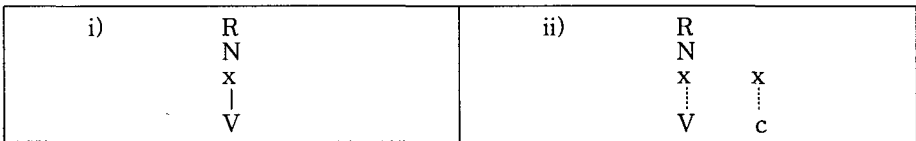
(5) 불어의 음절 구조 표현:

a) 두음은 분기한다. 따라서 세종류의 두음 구조를 얻을 수 있다.



- i) 두음은 있으나 분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
- ii) 두음이 분기하지 않는 경우 : 하나의 자음으로 시작되는 음절
- iii) 두음이 분기하는 경우 : 두 개의 자음으로 시작되는 음절

b) 운모가 분기한다. 따라서 두 종류의 운모구조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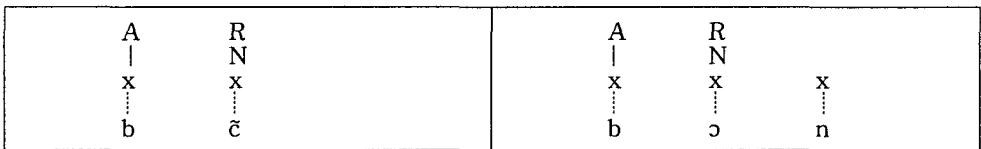


- i) 운모가 분기하지 않는 경우: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 즉 열린 음절
- ii) 운모가 분기하는 경우: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즉 닫힌 음절
- c) 음절핵은 분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운모구조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음절핵은 하나의 골격점에만 연결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불어에는 장모음이 없다.

상기 (4)와 (5)를 토대로 불어의 단음절 낱말에 대한 음절구조를 분석해 보면 (6)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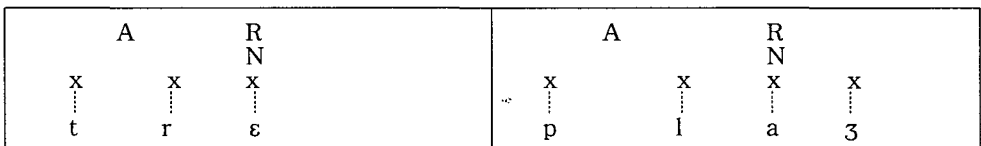
(6) a) CV : bon [bɔ̃] (좋은: 남성)

b) CVC : bonne [bɔ̃n] (좋은: 여성)



c) CCV : très [tʁɛ] (매우)

d) CCVC⁶⁾ : plage [plɑʒ] (해변)



6 불어에 -VCC 형태의 음절이 있는가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arbre [arbr] (나무)와 같은 것은 표면적으로 VCCC 형태의 단음절 낱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경우 낱말을 2음절 즉 [ar-br(ə)]로 분석하며 자세한 것은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단음절 낱말의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간단하게 표현된다. 그러나 발화체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음운현상을 올바르게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러한 낱말들이 발화체 안에 삽입되어 전후 문맥 안에서 어떠한 음절구조로 분석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화체를 고려할 경우에는 분절음만을 단순히 다루어서는 안되며 발화체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음운현상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Jean-Pierre regarde la plage. [ʒã'pjɛr | rɛgardlaplaʒ] (장뻬에르가 해변을 바라본다.)와 같은 발화체 전체의 음절구조를 분석해 보면 (7)과 같다.

(7) Jean-Pierre regarde la plage. [ʒã'pjɛr | rɛgardlaplaʒ ||]

A	R	A	R		A	R	A	R		A	R	A	R	
	N	^	N	\		N		N	\		N	^	N	\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	⋮	⋮	⋮	⋮	⋮	⋮	⋮	⋮	⋮	⋮	⋮	⋮	⋮	⋮
ʒ	ã	p	j	ɛ	r	r	ə	g	a	r	d	l	a	ʒ

상기 예문은 6개의 음절로 구성된 발화체이며 두 개의 음성군을 지니고 있다. 즉 [pjɛr]와 [plaʒ]에 문법강세(음절 앞에 ' ' 표시로 나타냄)가 놓인다. 이러한 음절구조 분석은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혹자에 따라서는 밀줄친 부분의 음절 가르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이유는 regarde[rɛgard]가 단독으로 분석될 경우, [rɛ]와 [gard]로 분리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두번째 음절은 CVCC 가 되어 불어의 음절유형 분류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음절구조 분석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한다.

2.3. 음절의 유형

일반적으로 음절의 형태를 모음으로 끝나는 열린 음절과 자음으로 끝나는 닫힌 음절로 구분할 경우, 불어는 비교적 열린 음절이 닫힌 음절 형태보다 그 숫자가 많은 언어이다. 이것은 또한 로망스어 계열 언어의 특성이기도 하다. 불어의 발화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음절 형태의 빈도 수를 타언어와 비교한 결과는 (8)의 표와 같다.

(8) 음절 형태의 빈도 수(%) 비교 표(Delattre 1965) :

음절형태	불어	스페인어	영어	독일어
CV	59.9	55.6	27.6	28.7
CVC	17.1	19.8	31.8	38.1
CCV	14.2	10.2	4.0	3.3
VC	1.9	3.1	11.9	9.8

다음 예문 (9)에서 음절 가르기를 살펴보면 전체 9개의 음절들이 모두 CV 형태로 열린 음절

이다. 이 경우에는 100%의 열린 음절 비율로 (8)의 표에 나타난 불어의 열린 음절(59.9+14.2 = 74.1%)을 단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함께 비교된 영어의 경우에는 전체 11개의 음절 중 5개가 닫힌 음절 형태이며 상기표의 게르만 및 앵글로색슨 계열 언어의 특성인 약 45%의 닫힌 음절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 (9) J'ai remis mon départ à demain. (나는 내 출발을 내일로 미뤘다.)
 [ʒe + rə + mi + mɔ̃ + de + pa + ra + də + mɛ̃]
 cf. I've put off my departure till tomorrow.
 [av + pu + ɔ:f + mai + di + pa:r + tʃər + til + tə + ma: + rou]

한편 발화 시에 음절의 길이를 살펴보면 불어에서는 문법강세가 놓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음절이 비슷한 길이로 발화된다. 그러나 자음과 모음의 결합상태에 따라 그 길이가 상대적으로 다르게 지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음절의 길이는 (10)에서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 (10) 불어 음절의 상대적인 길이를 결정하는 요인⁷⁾ :
- a) 음성의 수 : [strikt] (엄밀한) vs. [trik] (곤봉)
 - b) 음성의 특징 : [sɛk] (마른) vs. [sɛ:l] (소금)
 - c) [r, z, v, ʒ] 중 하나로 끝나는 닫힌 음절 안의 모음음 길게 발음된다.
 [sɛ:r] (온실); [sɛ:v] (수액); [sɛ:z] (16); [nɛ:ʒ] (눈)
 - d) [ɑ, o] 및 비모음([ã, õ, œ, ø])들은 발음되는 자음 앞에서 길게 발음된다.
 [pa:s] (통과) vs. [pat] (다리)
 [pã:s] (생각하다) vs. [pã] (웃자락)
 - e) 말소리의 속도에 따라 음절의 길이가 달라진다.

그러나 불어에서도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몇몇 낱말 짝에서 역사적인 모음의 길이의 대립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립은 현대불어에서 중화되어 사라져가고 있으며 실제 발화체 안에서도 그 길이가 중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11) 모음길이의 대립을 보이는 낱말 짝의 예:
- patte [pat] (다리) vs. pâte [pa:t] (반죽)
 - bette [bɛt] (근대) vs. bête [pɛ:t] (짐승)
 - André [ãdre] (앙드레: 남자이름) vs. Andrée [ãdre:] (앙드레: 여자이름)

7 분절음의 길이에 대한 더욱 상세한 설명은 Malmberg(1991 : 84-90)을 참조하기 바람.

또 한편 여러 개의 음절이 모여 음절 군을 이루게 되는데, 불어에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이러한 음절 군을 (12)에서와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분류하고 있다.

(12) 의미내용의 차이에 따른 음절군의 분류 방법:

명칭	의미내용, 예
a) 음성군	의미전달이 가능한 음절들의 모임. la petite maison [laptitmɛzɔ̃] (작은 집)
b) 호흡군	지각할 수 있는 휴지를 동반한 음성군/ Oui [wi] (네); Oui il m'a dit qu'il viendrait mais je ne le crois pas [willmadikilvjɛdremɛʒɔ̃nlɔkwapa]
c) 연사군	언어학적으로 통사적 단위를 이루는 음성군. (Oui) (il m'a dit) (qu'il viendrait) (mais je ne le crois pas) [wi] [ilmadi] [kilvjɛdrɛ] [mɛʒɔ̃nlɔkwapa]
d) 리듬군	발화문에서 강제음절로 끝나는 연사군. 'Oui il m'a 'dit qu'il vien'drait mais je ne le crois 'pas.

이 경우 휴지(pause : ' | ' 또는 ' || ' 표시)는 하나의 발화문, 단락 또는 담화의 끝을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낱말경계(' # ' 표시) 위치에 작용하여 다음 (13)에서 보여주는 의미전달의 모호성을 해결해 준다.

(13) petites # roues [ptit # ru](작은 바퀴) vs. petits # trous [pti # tru](작은 구멍)
la # tension [la # tã̃ʒjɔ̃](긴장) vs. l'attention [latã̃ʒjɔ̃](주의)

그러나 (13)의 경우 음운론자들이 서로 다른 음절 가르기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petites # roues [ptit # ru] (작은 바퀴)와 petits # trous [pti # tru] (작은 구멍)의 경우, Dell(1985)은 두 경우를 다 [ptitru]로 동일하게 분석하는 한편, Rialland(1985)는 [ptit # ru]와 [pti # tru]에서 자음연결체의 스펙트로그램상에 나타나는 음성분석이 파열음 [t] 전후의 묵음 구간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르므로 음절구조 분석 역시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⁸⁾.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음절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나 음절의 구조 및 그 특성을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음성학과 음운론에서 각각 별도로 음절을 고찰할 것이 아니라 두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하여 분석하여야 더욱 객관적인 음절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얻게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8 필자는 이 경우 말소리의 속도에 따라 다르게도 또 동일하게도 표현될 수 있겠으나, 발화문 전체를 통해 비교한 Rialland(1985)의 음성실험 분석 결과가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3. 운율현상과 음절

이 장에서는 운율현상의 결정요인들 중 특히 불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억양곡선 안에서 나타나는 음절의 역할 및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3.1. 불어의 운율현상

불어의 운율현상에는 소리의 길이, 세기 및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강세, 리듬 그리고 억양이 있다.

첫째, 불어에서는 영어에서와 같이 변별적 기능을 하는 강세는 없으나 일반강세 즉 문법적 강세는 발화문 안에서 발음되어지는 마지막 음절에 놓인다. 이 경우 불어의 강세는 언어학적으로 문법상 문장의 경계확정 기능을 수반하기 때문에 문법강세라고도 부른다. (14)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낱말의 문법강세는 발화문 안의 낱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화문 전체의 마지막 음절로 옮겨간다.

(14) Jean ['ʒɑ̃] ; Pierre ['pjɛr] → Jean-Pierre [ʒɑ̃'pjɛr] → Jean-Pierre Dupont [ʒɑ̃pjɛrdy'pɔ̃]
 (장) (페에르) (장페에르) (장페에르 듀퐁)

또한 강조강세는 문장중 특정한 단어를 강조하거나 문장의 의미를 보강하기 위해 또는 화자의 다양한 감정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발화문에 얹혀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전달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쓰이는 불어의 리듬은 문법강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리듬단위는 음절을 포함한 음성군(또는 낱말군)을 대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리듬군은 말소리의 속도에 따라 그 숫자가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15)의 예문은 세 개의 리듬군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의 리듬군으로도 축소될 수 있다.

(15) Jean-Pierre vient d'arriver à Pusan. (장페에르가 방금 부산에 도착했다.)
 [ʒɑ̃ 'pjɛr | vjɛdari 've | apu 'sɑ̃ ||] 또는 [ʒɑ̃ 'pjɛr | vjɛdariveapu 'sɑ̃ ||]

셋째, 억양 역시 전달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발화문에 얹혀 나타나는 운율현상으로써, 억양곡선에서도 문법강세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문법강세를 받는 음절의 높낮이에 따라 (16)에서와 같이 억양곡선이 올림조 또는 내림조의 패턴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16) a) Jean-Pierre vient d'arriver à Pusan.
 [ʒɑ̃ 'pjɛr ↗ vjɛdari 've ↗ apu 'sɑ̃ ↘]
 b) Il vient. [il 'vjɛ ↘] (그가 온다.)

불어에서 가장 중요한 운율현상인 억양곡선은 지속 및 의문 등을 나타내는 올림조와 단언 및

명령 등을 나타내는 내립조의 곡선으로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된다. 이러한 불어의 억양곡선은 소리높이에 따라 대략 다섯개의 계층구조로 묘사될 수 있다. 각 계층은 다음 (17)에서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17) 불어의 억양곡선의 계층적 구조 표(Léon 1992: 124-129):

계 층	의 미
계층 5	강조, 감탄
계층 4	지속, 명령 및 의문의 시작점
계층 3	약한 지속, 의문 시작
계층 2	음성(발화)의 평균점
계층 1	끝맺음, 삼입구 시작

불어에서는 동일한 하나의 음연속체를 대상으로 억양곡선의 패턴만을 변화시켜 의미전달의 대립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억양곡선은 변별단위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vunditrjɛ]을 아래 (18), (19), (20)에서와 같이 대립시킬 수 있다⁹⁾. 이 그림들은 모두 피치 변화를 임의로 표기한 것이다. 이때 억양곡선의 대립을 유도하는 것은 문법강세를 받는 마지막 음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 평서문: 올림-내립조, 계층 2-3-1 : Vous ne dites rien.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5	_____
4	_____
3	_____di-tes_____
2	_____Vous ne_____ri-_____
1	_____en_____

(19) 완전의문문¹⁰⁾ : 올림조, 계층 2-4 : Vous ne dites rien?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5	_____
4	_____en?_____
3	_____di-tes_____ri-_____
2	_____Vous ne_____
1	_____

9 이 내용은 Léon & Léon(1980 : 74-81)과 Léon(1992)을 참조하여 필자가 예문을 만든 것이다.
 10 불어의 의문문 형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의문사를 동반한 의문문(Est-ce que tu viens?), 둘째,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킨 의문문(Viens-tu?), 셋째, 평서문의 끝부분의 억양을 올려 나타내는 의문문(Tu viens?). 이 세번째 경우를 완전의문문이라 칭한다.

(20) 명령문: 거친 내림조, 계층 4-1 : Vous ne dites rien!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5 _____
 4 _____ Vous _____ ne _____
 3 _____ di-tes _____
 2 _____ ri- _____
 1 _____ en ! _____

이와 같이 불어의 강세음절은 발화문 안에서 중요한 운율적 기초단위가 되며 다음 표 (21)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강세음절이 무강세음절보다 두배 정도 길게 발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21) 강세에 따른 음절의 길이 분석 표(Léon 1992: 108):

Je l'ai quitté dès l'été. [ʒələkitedelete] (여름이 되자마자 나는 그의 곁을 떠났다.)

		ʒə	le	ki	te	dɛ	le	te
평서문	cs	13	14	15	28	14	14	24
	Hz	158			201 ↗			124 ↘
	dB	33	32	31	34	33	32	29
지속문	cs	12	13	15	20	14	15	31
	Hz	132			136 ↗			234 ↗
	dB	31	30	26	28	27	28	32

첫번째 문장(평서문)은 단언형태의 발화문으로써 올림-내림조의 억양곡선과 일치하며, 두번째 문장(지속문)은 지속 즉 발화문이 끝나지 않은 상태를 측정한 것으로써 올림-올림조의 억양곡선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불어의 운율현상 특히 억양곡선 안에 나타나는 음절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억양곡선과 음절의 관계가 CSL 음성분석 결과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3.2. 억양과 강세음절

이 절에서는 상기에서 논한 이론적 배경이 실제 음성분석 결과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CSL의 분석자료¹¹⁾를 바탕으로 억양과 음절의 관계를 고찰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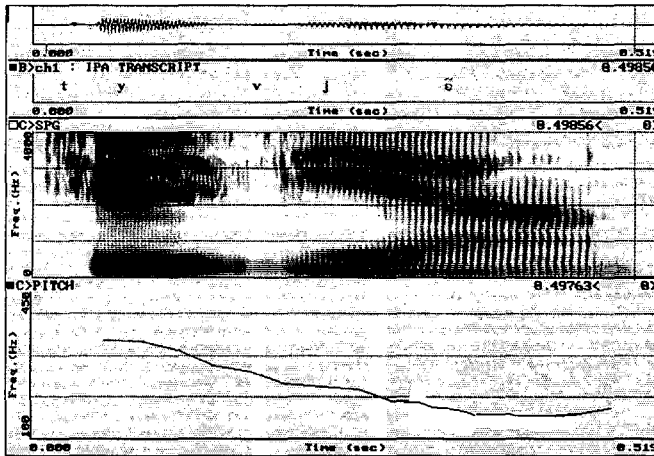
첫째, CSL 분석자료 (22)와 (23)은 [ty 'vjɛ]을 분석한 것으로써 억양패턴만을 변화시켜 평서

11 CSL 분석자료 창 설명 : 맨윗쪽 창 = 음성 파형 ; B 창 = 국제음성기호 표기 ; C 창 위 = 스펙트로그램 ; C 창 아래 = pitch 곡선(pitch는 상대의 올림이 있을 경우에만 분석 가능함. 따라서 분석자료 내에서 자음위치의 곡선이 끊긴 부분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러나 모음위치의 곡선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CSL이 음성을 분석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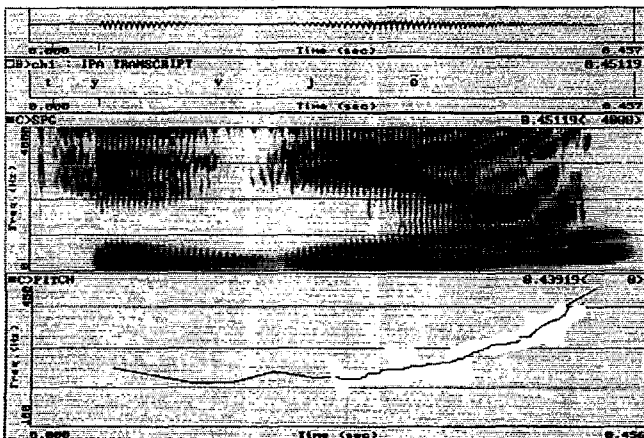
문과 완전의문문을 단순 비교한 것이다. 두 경우에서 모두 2음절 발화문 중 첫음절 [ty]의 길이와 둘째 음절 [vjɛ]의 길이가 크게 차이남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vjɛ]에 문법강세가 놓인다. 한편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이 경우에 억양곡선에 의해 의미가 변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CSL 분석자료 (24)와 (25)는 음연속체 [sefərmã]을 분석한 것으로서 억양형태만을 변화시켜 일반 평서문과 감정이 개입된 반어법투의 발화문을 비교한 것이다. (24)의 경우 마지막 음절인 [mã]의 부분이 평범한 하강곡선을 나타내는 반면, (25)의 경우에는 동일한 부분의 곡선이 하강-상승-하강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25)의 [mã]에는 문법강세에 덧붙여 강조강세가 얹혀 발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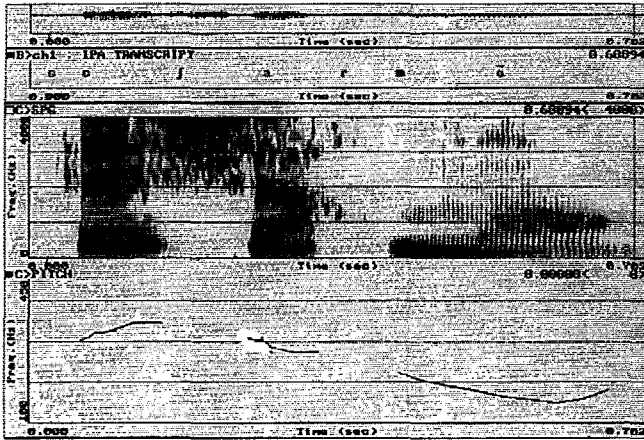
(22) 평서문 : Tu viens. [tyvjɛ] (네가 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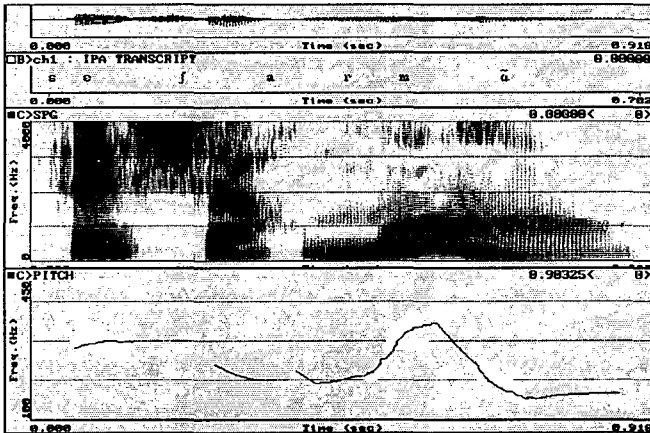
(23) 의문문 : Tu viens? [tyvjɛ] (네가 올꺼니?)



(24) C'est charmant. [sɛʃarmɑ̃] (평서문: 멋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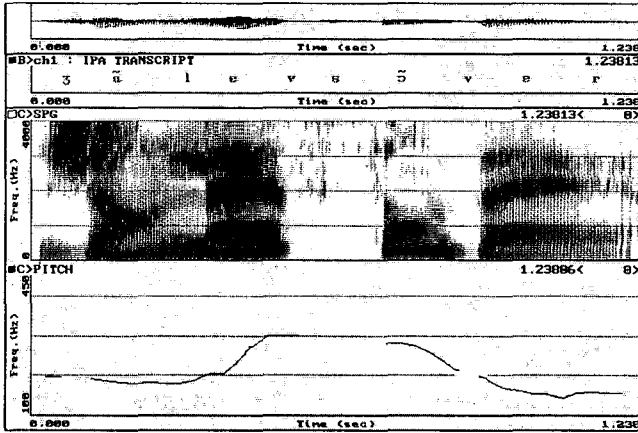
(25) C'est charmant. [sɛʃarmɑ̃] (반어법적인 '멋있다'는 표현: 난감함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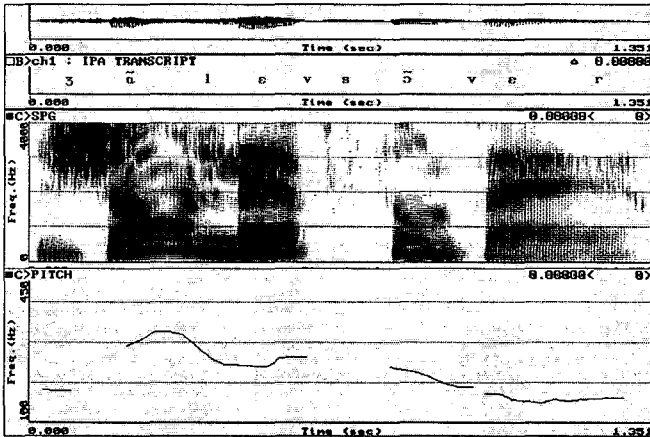
또한 (24)에서는 강세음절 [mɑ̃]과 무강세음절 [sɛ], [ʃar]의 음절길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25)에서는 강세음절 [mɑ̃]의 길이가 다른 음절들에 비해 확실하게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강세음절이 억양형태를 결정짓는 주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CSL 분석자료 (26)과 (27)은 [ʒālevsɔ̃ver]를 분석한 것으로서 표현된 억양곡선의 형태에 따라 발화문의 문법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26) J'enlève son verre. [ʒãlevsõvɛr] (내가 그의 컵을 치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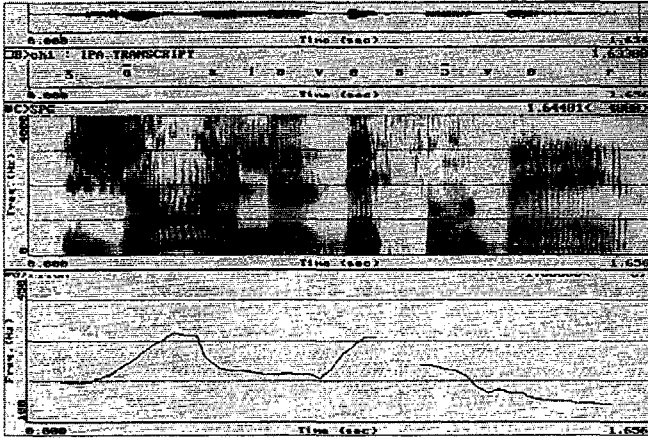


(27) Jean lève son verre. [ʒãlevsõvɛr] (장이 그의 컵을 든다. : 현재형)



이 발화문들은 상승-하강조의 단언문 형태이다. 두 경우 모두 스펙트로그램 상에 나타난 것으로는 거의 동일한 음색분석을 보여줌으로 의미차이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음절구조로 분석했을 경우에도 의미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억양곡선의 차이를 보면 (26)의 경우에는 상승부분의 마지막 음절인 [lev]에 문법강세가 놓이며, (27)의 경우에는 첫음절인 [ʒã]에 문법강세가 놓이므로 발화문의 의미차이를 구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 경우에도 이러한 강세음절이 억양곡선의 형태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28) Jean a levé son verre. [ʒãaləvəsɔvr̥] (장이 그의 컵을 들었다: 과거형)



끝으로 CSL 분석자료 (28)은 (27)의 과거형을 발음할 때 분석한 것으로써 발화문 안에서 주어인 Jean과 목적어인 son verre 사이의 동사 lève와 a levé의 차이에 따른 음성분석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27)의 lève [lev]는 단음절이고 a levé [aləve]는 3음절이다. 이렇게 발화문 안에 있는 음절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우리는 단언문 안에서도 상이한 억양곡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7)에서는 상승-하강의 단순구조를 보이던 억양곡선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28)의 경우에는 상승-하강-상승-하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28)의 발화문에 강세음절이 세 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음절 [ʒã], 네 번째 음절 [ve] 그리고 마지막 음절 [vr̥] 등이다. 이 경우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강세음절이 억양곡선의 형태를 선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음절구조 분석

음운론에서 음절의 특성규정에 참고가 되는 이론을 일반적으로 “공명연쇄의 일반화”(Selkirk, 1984 : 116 : Sonority Sequencing Generalization or Sonority Sequencing Principle) 또는 “자질분배”(feature distribution) 및 “대체부류”(substitution classes)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 이론들을 토대로 음절 안의 분절음 연쇄를 살펴보고 난 후 음절의 내부구조를 분석한다. 여기에서 불어의 음절구조를 분석하기에 앞서, 음절의 계층적 구조 안의 각 구성요소가 지배할 수 있는 분절음 연결체 제약에 관하여 보편적 언어사실을 근거로 Blevins가 설정한 5개의 매개변수들(parameters)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29) 분절음 연결체 제약에 쓰이는 5개 매개변수(Blevins 1995: 218)

매개변수	내 용
a) 복합핵음(Complex Nucleus parameter)	복합핵음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다.
b) 두음의무(Obligatoriness parameter)	핵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을 허용하지 않는 의무적인 두음의 여부에 대한 판단.
c) 복합두음(Complex Onset parameter)	두음 위치에 한 개 이상의 분절음이 허용되는가를 판단한다.
d) 말음변수(Coda parameter)	해당 언어가 닫힌 음절을 허용하는가를 판단한다.
e) 복합말음(Complex Coda parameter)	말음 위치에 한 개 이상의 분절음이 허용되는가 또는 단 한 개의 분절음만을 허용하는가를 판단한다.

상기 매개변수를 토대로 유표가치(yes)와 무표가치(no)로 양분하여 매개변수의 유무에 따라 언어를 분류하게 되며 음절유형의 유표가치에 등급을 매길 수 있다¹²⁾. 음절유형에 따라 유표가치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다음 (30)에 나열한 관찰사항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30) 유무표성에 대한 관찰:

a) 언어발달 초기 단계에서 유아가 발화를 할 때, 두음은 의무적이지 않으며, 복합두음이 없고, 복합말음도 없으며 낱말의 중간 위치와 낱말의 가장자리 위치에 나타나는 음절의 구조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
b) 제2언어 습득 시에 화자는 주어진 매개변수의 유표가치에서 무표가치로 넘어가는데(한국어 → 일어)는 어려움이 없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한국어 → 불어, 영어)는 학습자가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실.
c) 모든 언어에 CV음절(Core syllable)이 존재한다는 사실.
d)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제 음운현상의 도출과정에서 유표음절 유형이 무표음절 유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분절음의 첨가현상 및 탈락현상은 자연스런 결과이다. 그러나 도출결과 없었던 말음이 새롭게 생기게 하고, 복합두음이나 복합말음을 만들어내는 음운현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있어도 극히 예가 드물다.

이러한 음운론적 음절정의의 문제점은 음운현상의 요소들(억양, 강세 등)을 표시하기가 어렵

12 예를 들어 음절이 무표가치를 지니는 경우는, 두음이 없고, 복합두음도 없으며, 말음 또한 없고 낱말의 중간과 낱말의 가장자리에 있는 음절구조의 차이점이 없는 경우이다.

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불어에서 억양곡선의 형태를 결정짓는 주요요인으로 쓰이는 강세음절의 경계가 발화문 안의 리듬군(음절군)을 분리시킨다는 사실을 참고로 리듬군에 휴지표시(지속 = ‘|’ 및 끝맺음 = ‘||’)와 억양표시(상승조, 지속 = ‘/’ 및 하강조, 끝맺음 = ‘\’)를 발화문에 도입하여 불어의 발화문을 분석하고, 끝으로 불어의 음절 판형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편의상 의사소통의 최소단위를 발화문으로 간주하고 먼저 단선적 방법을 통해 (31)에서 발화문의 음절구조를 분석하고 (32)에서는 낱말의 음절구조를 분석·고찰하기로 한다.

(31) 발화문 단위의 음절구조 분석¹³⁾

a)	Je vous invite à Vincennes à la fin de la semaine. [ʒəvuzɛ̃votavɛ̃'sɛn/ alafɛ̃dla'smɛn\] ʒə - vu - zɛ̃ - vi - ta - 'vɛ̃ - sɛn a - la - fɛ̃ - dlas - mɛn CV CV CV CV CV CV CVC V CV CV CCVC CVC (주말에 당신을 Vincennes로 초대하겠습니다.)
b)	Je me demande ce que vous ferez demain. [ʒəmdəmɑ̃:d/ skəvufredmɛ̃\] ʒəm - də - mɑ̃:d skə - vu - fred - mɛ̃ CVC CV CV:C CCV CV CCVC CV (당신이 내일 무엇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c)	La petite fille du voisin travaille dans le jardin. [laptitfijdyvwazɛ̃/ travajdɑ̃lʒardɛ̃\] lap - tit - fij - dy - vwa - zɛ̃ tra - vaj - dɑ̃l - ʒar - dɛ̃ CVC CVC CVG CV CGV CV CCV CVG CVC CVC CV (옆집의 작은 여자아이가 정우너에서 일을 한다.)

이상 (31)에 소개한 발화문의 음절구조를 살펴보면, 2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열린 음절구조의 빈도수가 닫힌 음절구조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닫힌 음절 구조에 복합말음으로 끝나는 음절구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32)의 분석에서는 복합말음을 지닌 닫힌 음절 구조도 발견된다.

13 'C' = consonne, 'V' = voyelle, 'G' = glide, '-' = 음절경계 등으로 분류한다.

(32) 낱말 단위의 음절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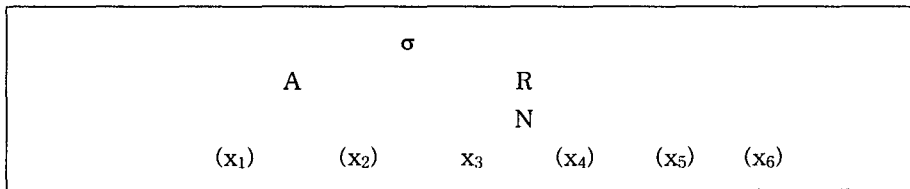
a)	et	[e]	V	(그리고)
b)	le	[lə]	CV	(남성단수 정관사)
c)	plein	[plɛ̃]	CCV	(가득한)
d)	forte	[fɔ̃ʁt]	CVCC	(강한)
e)	zèbre	[zɛːbr]	CV:CC	(얼룩말)
f)	propre	[prɔ̃pr]	CCVCC	(깨끗한)
g)	semaine	[səmə̃n]	CC-CVC(주)	
h)	petite	[pɛ̃tit]	CV-CVC(작은)	
i)	aptitude	[aptityd]	VC-CV-CVC	(적성)
j)	scandaleux	[skādalo]	CCV-CV-CV	(놀라운)

즉 (32)의 d, e, f 의 예에서 우리는 추상적인 기저형태의 음절 판형이 발화문에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음절구조와는 다르게도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불어의 음절 구조를 계층화시켜 복선적으로 그 하위 구성요소들을 분석하면 다음 (33)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음절 판형으로 표현될 수 있다.

(33) 불어의 음절구조 판형 : 단음절은 다음과 같이 재분석될 수 있다.

a) 단선적 표현¹⁴⁾ : (C) (C) V (V) (C) (C)

b) 복선적 표현¹⁵⁾



이 경우 음절을 구성하는데 꼭 필수적인 것은 음절핵이라는 것은 이미 아는 사실이며 자연스러운 발화문 전체를 분석해보면 이와 같은 음절 판형에 몇 가지 조건이 주어져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x₁과 x₂ 사이, x₅와 x₆ 사이에는 당연히 공명정도가 개입되어 x₂와 x₅가 x₁과 x₆보다 공명도가 높아야 하며, x₃과 x₄가 동시에 표현될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 음이어야 한다.

14 () 속의 것은 선택적으로 표면화될 수 있는 분절음이다. Glide는 복선음운론에서 골격점 하위체계로 표현되므로 여기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15 지배이론에서는 말음 구성요소인 Coda를 인정하지 않고 말음을 지배하는 골격점은 운모에 직접 연결된다.

끝으로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불어의 음절구조를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단음절의 유형을 정리해보면 다음 (3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4) 불어의 음절구조 분석의 계 유형

a) 열린 음절구조 유형¹⁶⁾

표면형	음절 판형		
i) V	A	σ	R N x ⋮ V
	x ⋮ ∅		
ii) CV	A	σ	R N x ⋮ V
	x ⋮ C		
iii) CCV	A	σ	R N x ⋮ V
	x ⋮ C ₁	x ⋮ C ₂	

b) 닫힌 음절구조 유형¹⁷⁾

표면형	음절 판형		
i) VC	A	σ	R N x ⋮ V
	x ⋮ ∅		x ⋮ C
ii) VCC	A	σ	R N x ⋮ V
	x ⋮ ∅		x ⋮ C ₁
			x ⋮ C ₂

16 분절을 위치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 '∅'로 표시한다.

17 여기에서 모음의 길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iii) CVC			σ	
	A		R	
			N	
	x		x	x
	⋮		⋮	⋮
	∅		V	C
iv) CCVC			σ	
	A		R	
			N	
	x	x	x	x
	⋮	⋮	⋮	⋮
	C ₁	C ₂	C ₃	C ₄
v) CVCC			σ	
	A		R	
			N	
	x		x	x
	⋮		⋮	⋮
	∅		V	C ₁ C ₂
vi) CCVCC			σ	
	A		R	
			N	
	x	x	x	x
	⋮	⋮	⋮	⋮
	C ₁	C ₂	V	C ₁ C ₂

5. 맺 음 말

이 연구에서는 불어의 억양과 관계된 음절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먼저 음절개념에 관한 음성학 및 음운론적 해석을 정리하고 음성 실험 분석을 통하여 억양과 음절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끝으로 음운론적인 음절 판형을 음성학적인 표면형을 바탕으로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음절 판형을 실제 발화체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또한 음운현상 분석 시에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는 문제는 다루지 못했으며 음절 판형의 당위성을 검증하기 위한 또 하나의 다른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최근 음운론 분야에서 정확한 음성학적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음운이론을 확립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음성학적 연구 결과는 물리적이고 구체적인데 비해 음운이론들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점과 새로운 음운이론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음성학적 실험 분석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불어를 대상으로 한 음성학과 음운론의 비교 또는 접합 연구 발표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특히 불어의 음절 구조분석에 관한

음성학 및 음운론적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사실은 불어에 대한 음성학 및 음운론적 연구가 각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음운론적 측면에서 음성학적 실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불어의 음절구조 분석 및 음절 모형을 정립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불어의 운율 유형 및 음운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음절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습득하여야 하므로 불어 교수법에 있어서 정확한 불어의 사용과 이해를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참 고 문 헌

- 김명호 역. 1989. *운율음운론*. 한신문화사.
- 김종훈. 1990. *음절음운론*. 한신문화사.
- 이기석. 1993. *음절구조와 음운원리*. 한신문화사.
- 이정원. 1986. "한국 학생들에게 나타난 불어 리듬 연구." *외대어문논집* 제1집. 부산외국어대학.
- 이정원. 1988. "TCG와 음절간의 음운현상 -음절 이론을 중심으로-." *외대어문논집* 제4집. 부산외국어대학.
- 이정원. 1994a. "불어의 억양." 대한음성학회 주최 제1회 음성학 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정원. 1994b. "불어와 한국어의 음성학적 비교 연구 - 억양을 중심으로 -." *언어학* 제16호. 한국어학회.
- 이정원. 1995. "불어의 음절가르기에 관한 연구." 음성학연구회. 제2차 음성학 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정원. 1996. 불어의 음절구조 연구. 음성학연구회. 제4차 음성학 학술연구 발표대회 발표논문.
- 조성식 ed. 1990. *영어학사전*. 신아사. 서울.
- Blevins, J. 1995. The syllable in phonological theory. in J. A. Goldsmith(ed.), *The Handbook of Phonological Theory*, 206-244. Blackwell Publishers.
- Dell, F. 1985. *Les règles et les sons*. Collection Savoir. Paris.
- Durand, J. 1990. *Generative and Non-linear Phonology*. Longman · Linguistics · Library.
- Kaye, J.D., J. Lowenstamm & J.-F. Vergnaud. 1985. "The internal structure of phonological elements : A theory of charm and government". *Phonology Yearbook* 2, 305-328.
- Lee, J.-W. 1990. "La structure syllabique et les segments". *外大論叢* 제8집, 117-209. 부산외대.
- Lee, J.-W. 1993. *La structure syllabique et les consonnes du coréen*. Univ. Paris 7. Ph.D. Dissertation. Hanshin Publishing Co.
- Léon, P. & M. Léon. 1980. *Introduction à la phonétique corrective*. Hachette/Larousse. Paris.
- Léon, P. R. 1992. *Phonétisme et prononciation du français*. Nathan université. Paris.
- Malmberg, B. 1991. *La phonétique*. 15è. éd. PUF. Paris.
- Rialland, A. 1985. "Schwa et Syllabe en Français". in *Studies in Compensatory Lengthening*. Leo Wetzels & Engin Sezer eds., 187-226. Foris Publications. Dordrecht.
- Saussure, F. de. 1967.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yothèque. Paris.

Selkirk, E. 1984. "On the major class features and syllable theory", in M. Aronoff and R.T. Oehrle(eds.). *Language Sound Structures*, 107-136. Cambridge. MA. MIT Press.

접수일자 : 97. 1. 25.

게재결정 : 97. 2. 17.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산 55-1

부산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불어과 (우편번호 : 608-738)

Tel : (051) 640-3062 (O), (051) 622-1799 (H) FAX : (051) 645-4525

e-mail: julee@taejo.pufs.ac.kr